



## 대학 캠퍼스와 난개발

정기용 | 기용건축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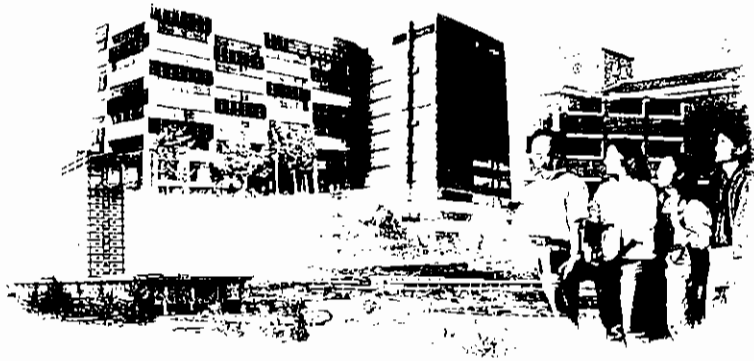
### 1. 전제

이 나라에는 현재 국·공립대 46개교와 사립대 147개교를 합해서 193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열이야말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떠받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떠올릴 만한 대단한 숫자이다. 교육의 질과 캠퍼스 환경의 질을 따져 보기 전에 양적으로 말하자면 실로 경이로운 발전이다. 그러나 간단한 이 통계 숫자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76%에 이르는 대학이 사립대학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2년제 전문 대학까지 합한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사학의 천국이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는 대학교육에 관한 한 민간 재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대학을 설립해서 캠퍼스를 건설하고 신입생을 받기까지 당국자들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소위 대학 설립자들은 하나의 대학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체험을 했을 것이다.

한국적 현실 속에서 헤쳐 나아가야 할 온갖 종류의 험난한 난관을 돌파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것이면 중간에 포기할 것을 그랬다”고

했을 것이다. 국·공립대학들이야 국가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 만큼 피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 20여 년 안팎으로 설립된 사립대학들은, 토지 구입에서 형질변경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우기까지 남모를 지혜들을 동원했어야만 했고 그 결과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마주 할 수밖에 없는 온갖 종류의 대학들이다. 결국 한국의 대학들은 지금 이 땅위에 펼쳐져 온 온갖 종류의 건설 사업들의 현실과 닮은꼴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본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지나다 눈살을 찌푸리며 마주하는 건물군들은 대개가 대학 캠퍼스들이다. 이렇게 산을 절개하고 그 앞에 다닥다닥 군집한 건물군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놀라워한다. “어떻게 대학까지도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그렇다 문제는 소위 학문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마저 자연 훼손을 식은죽 먹듯한다면 누가 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을 위해선 별 불일 없는 야산 하니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묻는다면 할말은 없다. 이 보다 더한 훼손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설립한 대학을, 그것도 ‘산을 조금 절개한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선의를 음해 하는 일이라고 까



지 말한다면 결국 이 글은 쓸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으로 용인할 정도를 넘어선 캠퍼스의 난개발을 얘기해야만 한다.

이제는 쉬쉬하고 타부시하며 덮어놓을 일이 아니라 투명하게 문제를 들어내 놓고 반성하고 치유할 노력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 II. 대학이 산자락으로 간 까닭은?

몇몇 국·공립 대학들과 오래된 사립대학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이 산자락으로 깃들은 것은 자연 환경을 캠퍼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보다는 땅 값이 싸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평지는 다 도시화되었거나 절대 농지이며 토지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나라에서 대학이 갈곳이란 산밑의 경사면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해답은 너무나 단순해 보인다. 특히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밑의 대학들은 훨씬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학 설립을 진행해 온 듯 하다. 도심으로부터 멀어져야 우선 땅값이 싸다. 조용한 들녘 주변이면 더욱더 바람직한 그런 입지를 찾아 미래의 대학 진입로 주변을

우선 선점하기 시작한다. 마을 뒷산 자락에 대학을 설립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은폐한 채로 말이다. 그래야 땅은 시세대로 싸게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선점한 땅들은 미래에 '캠퍼스 길목'으로 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재정을 충당할 지렛대로도 활용할 법한 일이다. 대체로 길목이 선점된 후 산자락에 캠퍼스 공사가 착공된다.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급경사의 사면들을 절개하지 않고는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아주 쉽게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한다. 준농림지나 산림을 형질변경할 때 얼마나 많은 절개지가 생길 것인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그저 내 고장에 대학이 들어선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지덕지 할 뿐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우리 시골에도 이제 대학까지 들어섰다고 하는 자부심을 생각한다면 나무 몇 그루나 산허리가 잘려 나간다고 손해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토지를 가급적 최대한으로 싸게 확보하여 최대의 사용 면적을 만들어 내면 그만인 것이다. 이는 마치 아파트 개발업자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이점에서 최근 10여 년 사이 기습이건 산정상이건 가릴 것 없이 솟아나는 아파트들의 난개발을 보면 그 양심이 마구잡이로 건설한 많은 대학 캠퍼스와 다를 것이 없다. 어떤 것들은 원경에서 보면 마치 산 속에 박혀 있는 괴물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대학은 학문으로 먹고사는 곳이 아니라 산을 파먹는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조선조 때 미니 대학이라 할 '서원' 건축의 전통을 갖은 나라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백일 천하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정식 절차를 밟아 법대로 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태도로 서 있는 캠퍼스들을 보면 그곳에서 과연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밖에 없다.

산자락에선 학교들은 당연히 교실 안에서 앞으로 탁 트인 경관을 만끽할 것이다. 뒤로는 피 흘린 산들의 절규를 목살한 채로 말이다.

토지의 한계 상황과 재정의 취약성, 그리고 열악한 토지를 적절하게 다룰 전문성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총체적이고 엽기적이기까지 한 환경 파괴의 전철을 그대로 대학도 답습하고 있다. 이는 마치 통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를 가르치면서 학교는 자연을 파괴한 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말하면서 전근대적이고 획일화된 건물군으로 급조된 캠퍼스 속에서 생활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 땅과 이 도시를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헉헉거리며 급경사와 계단을 올라올 학생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곧 학교를 졸업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

### Ⅲ. 대학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에는 늘 학생이 있고 그들이 주체인 듯 하지만 주인은 아니다. 그들은 일정한 연한을 마치면 졸업을 하고 더 이상 학교에 올 일이 없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교라고 해도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쩌다 환경을 문제로 삼던 학생들

이 자동적으로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교를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주인들과 그리고 교수들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주변 환경을 돌보기에는 늘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주체인 사람들이 결국은 대학의 주인이나 다름없다. 사학인 경우 그들이 운영하므로 환경에 관한 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학교를 설계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들의 일은 종료된지 오래전이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면 훼손된 자연과 열악한 캠퍼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아마도 이런 것은 지금 대학의 현안이 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세계와의 경쟁 체제 속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둘 수 없다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훨씬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물론 몇몇 대학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세심한 곳까지 배려하고 심혈을 기울여 좋은 캠퍼스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남다른 경우도 있고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다. 성균관대학 수원 캠퍼스나 안산의 한양대 캠퍼스 또는 명지대 캠퍼스들이 비교적 대학생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배치에서도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학생들의 행위를 보살필 것인가 깊이 있게 연구된 듯 보인다. 캠퍼스 설계의 관건은 여러 동으로 분화된 건물군들을 어떻게 집합해 내어 건물만이 아니라 옥외 공간까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가 하는 점과 이를 풀어내기 위한 기존의 대지 조건을 여하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물론 상징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며 유지 관리를 경제적으로 입안하는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주어진 대지의 특질과 자연의 힘을 어떻게 캠퍼

“

좋은 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좋은 대학을 만드는 노력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자연' 과 '학교' 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되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학 캠퍼스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채우기보다는  
 비우고 속아 내는 방법을 통해서 환경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스 계획과 관련지를 것인가 하는 개념의 설정일 것이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여 비교적 바람직한 캠퍼스를 만들어 낸 사례들이 일반 대학보다도 오히려 전문대학들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최근에 안산캠퍼스로 이전한 서울예술전문대학이나 울산에 막 일부 공사가 끝난 춘해대학 캠퍼스를 보면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근사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제 막 공사를 착공한 대전대학의 학생회관과 기숙사동도 완공된 후 급격한 경사면을 건축적으로 풀어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안들은 대학 당국이 환경의 질을 높일 의지가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 이를테면 능력 있는 건축가들과 협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의지가 있으면서도 일정한 체험과 능력을 소지한 전문가를 못만나는 경우가 문제일 수 있으나 이는 대학 설립의 결정적인 순간 비전문인들, 특히 학교 당국자나 재단의 건축적 취향을 배제하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쳐 설계 공모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대학은 도시와 같이 늘 변화에 대처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고 항상 부족한 공간을 메워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제대로 지은 한 채의 건물을 가지고도 이미 잘못된 환경을 치유하는 단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는 오히려 국립대학이나 이

머 역사가 오랜 사립대학들에서 더 많이 보인다. 고려대나 연세대, 이화여대와 같이 이미 기존의 캠퍼스가 그 분위기나 규모가 한국의 대학의 특질들을 보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축된 건물들은 늘 기존과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이들 대학에는 건축학과까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일이다. 특히 홍익대학이나 서울대학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IV.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학내 건축학과가 있고 많은 건축 관련 전문 인재들이 있는 캠퍼스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이 대학캠퍼스의 질을 저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학은 국립대학이고 그 규모나 명성에 비하여 캠퍼스 전체는 서서히 가장 열악한 상태로 전환되고 있는 듯하다. 본래 서울대 캠퍼스는 잠정적 수요를 쉽게 통제할 여러 이유들이 동원되어 순환도로 안에 미로처럼 얽혀 있다. 정문을 들어서서 본래 넘람하게 있었던 느티나무들을 제거하고 관악산 자락에 그나마 의욕을 가지고 모더니즘의 언어로 얹혀 졌던 건물군 사이에 하나씩 첨가되는 건물들의 모습이란 미구잡이로 지어 대는 도시 풍경을 닮아 가고 있다. 행정대학원 건물이 그렇고 새로 지

은 공학관은 자연 파괴라는 이름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존의 콘텍스트를 무시한 채 마치 유원지 '헛집'과 같은 이미지로 행정대학원이 비집고 들어온 연유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재벌 회사들이 기증한 연구소들은 캠퍼스의 통합된 이미지와는 관계 없이, 관악산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무관하게 단순한 하나의 유용한 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 내에 건설위원회가 있고 많은 회의를 통해 건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렇게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증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여 어떤 얼굴이라도 수용한다는 자세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왕 기증하는 건물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존 캠퍼스의 질서나 문맥을 존중하도록 권유한 장치조차 없다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것을 돈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만일 "잘 쓰고 있으면 됐지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 대학 캠퍼스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양성과 혼돈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해 주고 싶다. 다양성이란 이질적인 것의 집합이 아니라 관악산이라는 자연환경과 기존의 캠퍼스의 문맥을 새롭게 해석하고 더 풍요롭게 하여 동질성과 통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서울대학 규모의 캠퍼스는 몇 개의 건물군을 기능적으로 배치하는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의 특수한 도시를 만드는 일과 맞먹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일이다. 매일매일 수만 명이 사용하는 이러한 대학 캠퍼스는 단위 건물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할 때 하나 하나의 건물들은 전체 속에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기여할 속성들을 갖는다. 필자가 대학 신문에서 '변방의 미로'라고 명명한 서울대 캠퍼스가 그 아름다운 경관과 합일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무

리 조그만 건물이나 벤치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문적이고 문화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행위들을 중단시킬 대안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21세기의 종합 대학 캠퍼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지속적이고 새로운 시각의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당국은 아마도 이에 합당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현대의 대학들은 마치 컴퓨터의 칩과도 같이 모든 행위들을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운영할 인프라를 구축한 바탕 위에 공간이 배열되고 있다. 가끔 활용하는 대학의 운동장들은 사실상 대체로 과다하게 잡혀 있고 신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대학 전체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자면 낭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중앙집중식 보다는 분산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들이 모색될 시점이다. 일반 도시와 같이 늘 변화하는 인자들을 어떻게 신속적으로 배열하고 대응하는가 하는 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 대학 캠퍼스도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 질지도 모른다. 그것은 교육의 질이나 환경의 질을 넘어서는 대학 존립 자체의 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대학들은 '교육열'이라는 열기 하나만을 믿고 지탱하기에는 호시절이 다 지나갔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를 하고,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모든 대학들은 국내를 상대로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대학들과 경쟁 상태에 돌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이란 지금과 같이 단일한 상태로 높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본 밑바탕에는 여전히 자연과 역사를 존중하고 기초학문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모든 것을 대학 캠퍼스의 환경의 질이라고 말한다면 이를 거슬러 갈수록 문제는 더

확대될 뿐이다. 이 글의 목적은 특성 캠퍼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들이 올바른 대학 캠퍼스의 재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짚어 보고 그 해법을 공유하지는 것이다. 대체로 문제의 공통된 본질 속에는 잘못된 관행과 공간 생산의 프로세스에서 비롯되며 적절한 경우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은데 있지. 예산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학교 운영 주체들의 의지에 관련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딪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심지의 대학들은 제한된 대지면적에서 운신할 여지가 없을 때 곤란에 처한 나머지 극단의 해결책으로 난관을 돌파하려 한다. 이를테면 홍익대학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끌고 루 운영하는 홍익학교 재단은 벼랑끝에 몰린 나머지 행인들에게는 쉽게 들어 나지 않는 뒷산을 깎아 무리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앞선 글에서 보았듯이 자연훼손은 물론 건축적 환경을 만들어나 가는데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는 듯하다. 길고도 긴 동선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주는 조선대학이나, 좁은 땅에서 인간힘을 쓰면서 학교를 확장해 나가는 홍익대학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대학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좁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좋은 대학을 만드는 노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자연'과 '학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캠퍼스란 불가능한 것을 실현해 보이는 건축적 실험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장소이다.

이제 대학 캠퍼스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채우기 보다는 비우고 숨아 내는 방법을 통해서 환경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나라 이 땅에 만연한 개발의 열기 속에서 현재는 거품이 찾아들고 '살고 싶은 집', '머물고 싶은 장소', '차분하게 사색할 수 있는 터'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학 캠퍼스가 시중의 난개발을 닮지 말고 적어도 학교에서부터라도 공간이 문화가 되는 그런 정서를 소중하게 키워 나가야 할 때이다. 만일 대학이 그 존재만으로도 문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없다면 이 나라 이 땅 어디에서 우리는 위안을 찾을 것인가?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캠퍼스 안 도처에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차분하게 대학이 이끌어 갈 사회에 대한 책임과 전망을 동시에 할 순간이다. 대학은 학문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환경이고 존재의 장소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사회에 투영될 것이다. 그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하 나라도 더 찾아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는 자연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도 그들이 마땅히 대접받고 존재할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우리들이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정기용**

#### 정기용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공예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국립장식미술학교 실내건축과, 건축제6대학 U.P.A.S 및 파리제6대학 도시계획과를 졸업하였다. (주)참조종합건축사 사무소 상무이사, 대전세계박람회 회장 계획 조정위원(건축), 한양대 건축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기용건축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예술종합대학 건축과 겸임교수, 민예총 민족건축협의회 회장, 서울건축학교(SA)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 작품으로 계원조형예술대학 실기동 및 본관, 법인사무 등과 서울예전 드라마센터 리노베이션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이집트 구드나마를 이야기'가 있다.